

알라스카의 석유개발

美國 정부는 북극권 야생동물보호구역인 알라스카의 석유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3만6천평방킬로미터 면적의 보호구의 석유 매장량은 36억배럴로서 美國 내에서 최후·최대의 석유자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걸프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안전보장문제가 클로즈업되자 부시행정부와 석유업계는 북극권 야생동물보호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저항도 만만치 않다.

알라스카는 기름 위에 떠있는 州다. 州재정의 70~80%는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입원은 주로 州有地의 사용료와 세금등 석유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收入이다. 주민의 소득세는 없으며 오히려 州정부는 石油收入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매년 전 주민에게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석유收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 대한 우려와 반성도 있지만 極北이라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석유의존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석유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은 북극해에 면한 프루도灣유전으로 현재 BP, 아코, 엑슨등이 유정을 뚫어 하루 1백40만배럴의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태평양연안으로 수송하고 있다. 이같은 산유량은 美國 산원유의 20%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그러나 유전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산유량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으며 90년대 말까지는 50만B/D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수입 감소와 美國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알라스카경제가 타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가운데 지난해 가을 州지사선거에서 석유개발에 적극적인 공화당소속의 현직사가 당선됐다.

신규개발 대상지역은 프루도만 동쪽에 위치한 광대한 초원지대(툰드라)로 한냉하고 비가 적은 기후 조건 때문에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하며 여름철에는 지하의 영구동토가 녹아 습지로 변한다. 그러나 카리브라고 부르는 순록과 수많은 새들의 서식지로 국가에서 보호지구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보호구개발에 착안한 것은 지사만이 아니다. 부시대통령은 걸프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월에 발표

한 「국가에너지전략」에서 보호구의 개발을 역설했다. 정부는 국내유전의 노후화로 美國의 원유도입 의존도는 90년의 42%에서 2000년에는 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원유의 수입의존도를 현수준에서 억제한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전략이다. 북극권개발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의 이점은 에너지안전보장에 그치지 않는다. 보호구는 연방정부의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정부 국고로 귀속된다. 부시대통령의 의향을 받은 존스톤(민주) 워로프(공화) 상원의원이 제출한 「에너지전략법안」은 사용료收入을 대체에너지개발에 투입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한편 보호구를 「사람의 손이 전혀 닿을수 없는 신성한 토지」라고 주장하는 자연보호단체의 저항도 거세며 법안은 현재 美상원에 계류중이다. 환경파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올해 본회의에서 논의에 들어갈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이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보호구의 解禁은 불가능하다.

자연보호냐 개발이냐 하는 대립은 환경보호운동이 고조된 美國 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지만, 알라스카의 보호구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문제에 국가에너지전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美國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가름할 알라스카는 바야흐로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다.

